

2023.06.09(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6-09 오전 4:08

수정한 날짜: 2023-06-09 오전 11:52

2023.06.09(금) 증권사리포트

한화솔루션

배터리용 가성소다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발전사업 전략 방향, 운영 보다는 매각 집중

한화솔루션 신재생에너지부문은 최근 태양광 제품 스팟 판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익성을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로 올해 2분기 이후 판매 물량 측면의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웨이퍼 가격 하락으로 모듈 스프레드가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AMPC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온기 반영될 전망이며, 수출 운임 하락으로 원가 개선이 예상되고, 대형 사이즈(M6/M10) 비중 확대로 ASP 상승 효과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모듈 증설 효과 발생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한편 동사는 대규모 미국 투자 자금 집행을 고려하여 당분간 발전사업 방향을 회수 기간 긴 운영 보다는 매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후 매각을 통한 자금은 운영 자산에 재투자하며 파이프라인 규모를 확대해 자금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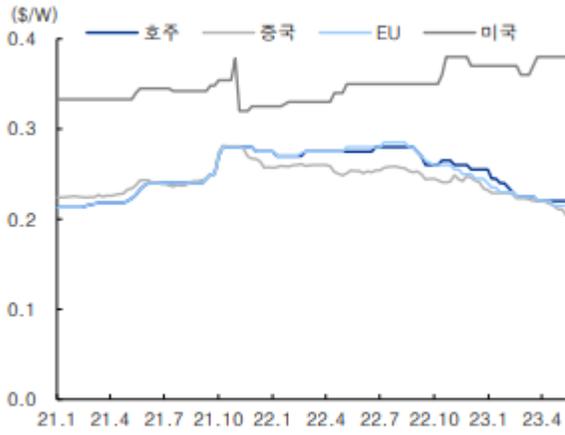
국내 전구체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가성소다 수요 동반 증가 전망

국내 양극재 전구체에 들어가는 가성소다 사용량은 작년 기준 5.4만톤으로 국내 전체 가성소다 수요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전구체 내재화 확대 및 전구체 업체들의 신증설 등으로 2028년에는 전구체용 가성소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전체 수요의 2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LG화학,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한국전구체, 에코앤드림, 지이엠코리아, CNGR 등 국내/외 업체들의 국내 전구체 합산 생산능력이 작년 7.5만톤에서 2028년 65.2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성장성이 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과정에서도 가성소다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동사 CA 설비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동사의 가성소다 생산능력 84만톤으로 독보적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고, 부산물 염소 처리에 따른 국내 경쟁사의 증설이 제한된 가운데 동사는 여수 1.3만평 부지에 가성소다 27만톤 증설로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단위: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10,725	13,654	12,196	12,694	13,184
영업이익	738	966	1,102	1,525	1,528
세전이익	855	569	684	1,272	1,422
지배주주순이익	619	359	480	953	1,062
EPS(원)	3,301	1,864	2,707	5,461	6,084
증가율(%)	79.4	-43.5	45.2	101.8	11.4
영업이익률(%)	6.9	7.1	9.0	12.0	11.6
순이익률(%)	5.7	2.7	4.1	7.8	8.4
ROE(%)	8.8	4.2	5.4	10.3	10.4
PER	10.8	23.1	17.5	8.7	7.8
PBR	0.8	0.9	0.9	0.8	0.8
EV/EBITDA	8.2	8.6	7.9	6.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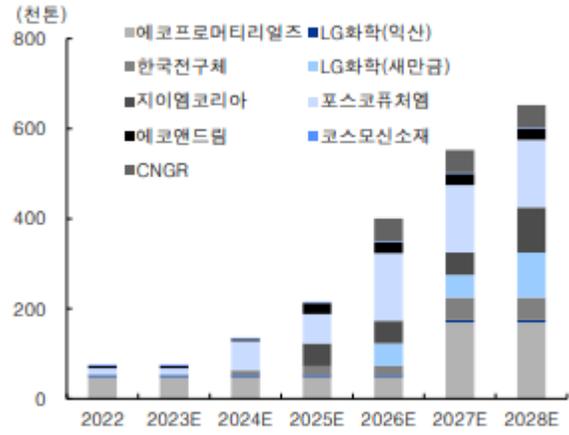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주요 지역 단결정 모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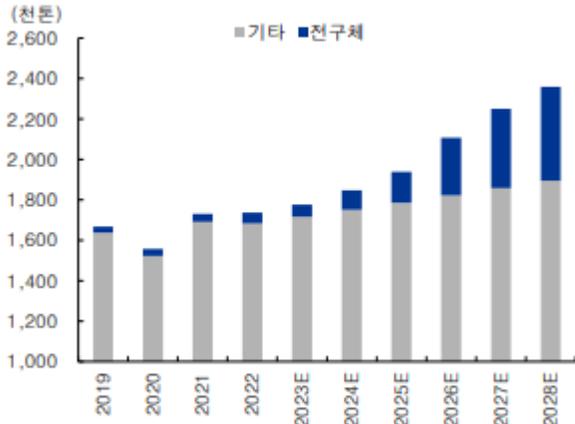
자료: PVIL, IBK투자증권

그림 2. 국내 전구체 업체 생산능력 전망(추정치)



자료: 한화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3. 국내 가성소다 수요 추이/전망(추정치)



자료: 업계, IBK투자증권

그림 4. 한화솔루션 CA6 증설 계획



자료: 한화솔루션, IBK투자증권



석경에이티

2차전지 전고체 전해질 및 TIM 소재 본격 출격 준비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나노 기술 기반 2차전지 필수 소재 독과점 위치 선점 유력

석경에이티는 신성장동력인 2차전지 소재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최근 봉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및 도전재 개발 완료에 따라 '봉산화물 및 용융염계의 고체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등 2차전지 전고체 전해질 소재 관련 6종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2) 전기차 배터리 방열 역할을 수행하는 세라믹계 TIM(Thermal Interface Materials) 소재 역시 고객사와 전기차 배터리항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QY research에 따르면 TIM 소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1.8조원→2028년 2.8조원으로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의 핵심 소재다.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로 국산화 니즈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동사는 선행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들의 한계점 타파 및 국산화로 독과점적 위치 선점이 유력한 상황이다. 성장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대비 저평가 상태다.

2차전지 소재 기반 CAPA 증설 발표 임박, 본격 성장의 신호탄

석경에이티는 지난 4월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입주 모집 사업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결과는 6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 지난 3년동안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중 2) 성장성이 높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수출특화단지의 토지 무상지원 사업으로 무리 없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주력 제품인 YbF3, BAG & SRG 등 덴탈 소재를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2021년 54.1% → 2022년 62.9% → 1Q23 6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인 2차전지 소재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공장은 2차전지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증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 현재 봉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소재는 국내 2차전지 셀 메이커 3사 기업 중 1개 기업과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2) TIM 소재 생산 라인 또한 추가 증설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적인 전고체 전해질 및 TIM 소재 등을 기반으로 CAPA 증설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물론,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석경에이티를 주목해야 한다.

2023년 매출액 194억원, 영업이익 78억원 전망

2023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94억원(+57.1% YoY), 영업이익 78억원(+65.6% YoY)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한다. 1Q23은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고정비용(R&D 비용, 설비 투자 등) 증가가 반영되었으나 1) 재고 조정 종료에 따른 유럽향 덴탈 소재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2) 화장품 및 3D 프린팅 소재 등 신제품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며,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내년부터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6	7	9	12
영업이익	1	1	3	5
세전이익	1	1	4	5
순이익	1	1	3	4
EPS	251	229	569	787
증감률	198.8	(8.8)	148.5	18.3
PER	0.0	165.9	31.4	29.7
PBR	0.0	10.0	4.1	4.2
EV/EBITDA	0.0	103.1	25.4	21.6
ROE	11.1	4.9	13.0	14.4
BPS	2,271	3,807	4,365	5,629
DPS	0	0	0	0





파크시스템스

26년까지 시설투자 2배 확대

[\[출처\] 하나증권 변윤지 애널리스트](#)

신규 사옥 건축 위한 투자금액은 641.6억 원으로 26년 완공 예정

6월 5일 장 종료 이후 나노계측장비 전문업체 파크시스템스는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다.

생산 능력 및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규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

23년 7월부터 시작하는 투자로 종료일은 26년 2월이다. 완공시점은 25년 말 또는 26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금액은 641.6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4%이다. 시설투자 금액은 건설비용으로 부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설투자 금액의 자금조달은 자체자금 및 은행차입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진행률에 따라 나눠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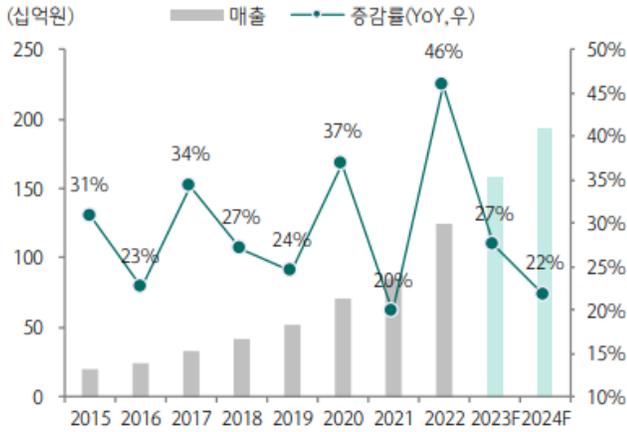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생산 공간이 추가되어 장비 생산이 수월해지고, 고급인력 확보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공 이후 연간 예상 매출은 23년 추정치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3,000억 원으로 전망한다.

운영 방식에 따라 연간 예상 CAPA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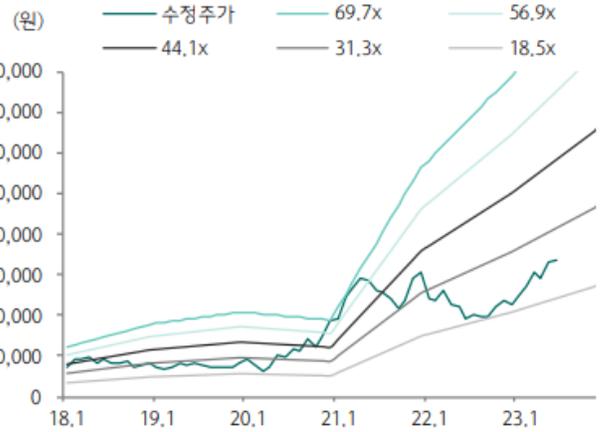
이 외에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트에 파크시스템스 입주가 확정되었다. 향후 관련 CAPA 확장도 기대된다.

도표 1. 파크시스템스 연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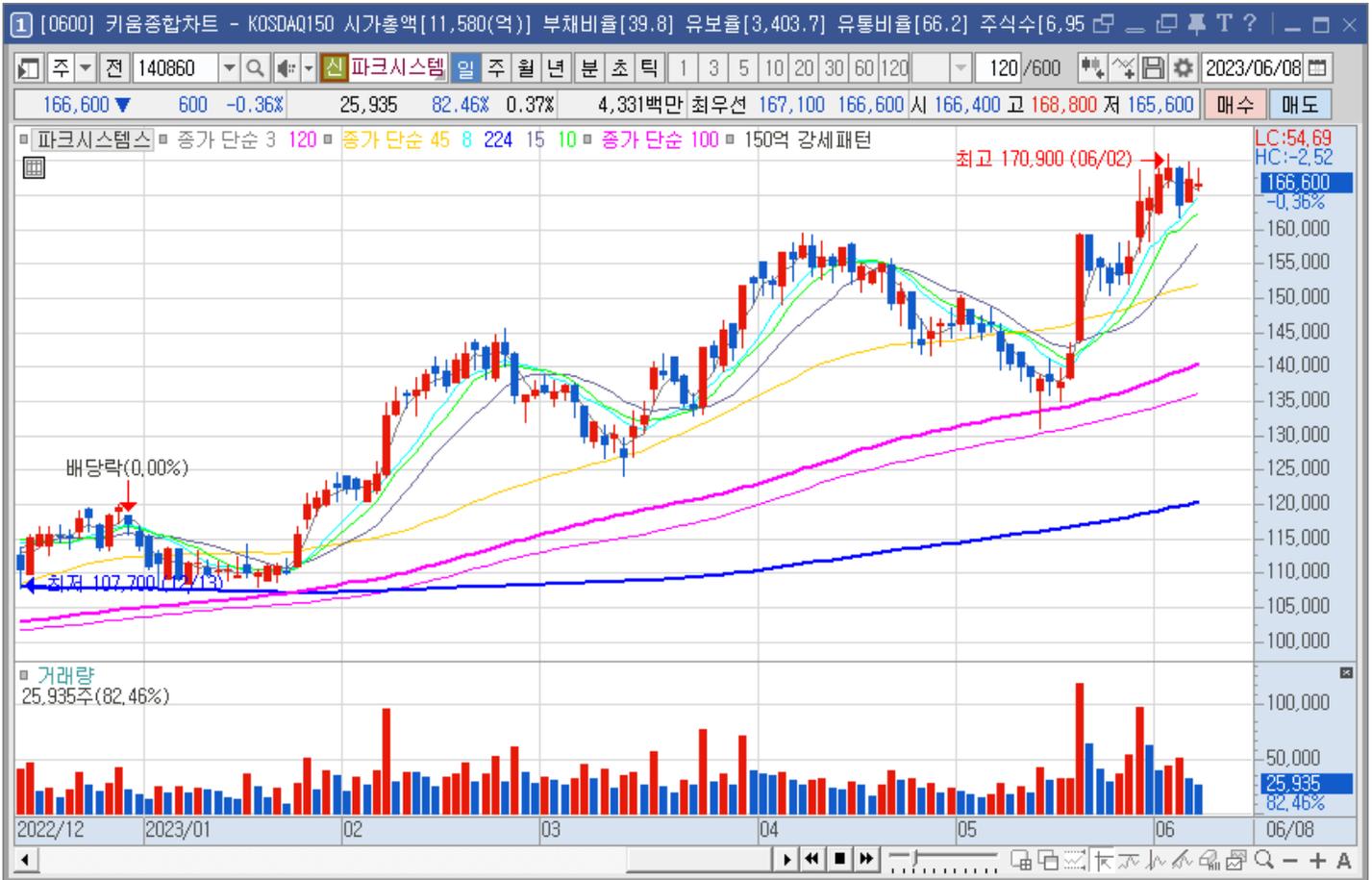
자료: 파크시스템스, 하나증권

도표 2. 파크시스템스 12Fwd P/E



자료: 파크시스템스, 하나증권





천보

바닥을 지나는 실적, 개선중인 업황 재확인

[\[출처\] DS투자증권 구성중 애널리스트](#)

IRA 이후 업황은 천보에 우호적

천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9만 원을 유지한다. 전해액 첨가제 사업은 대량생산/원가절감이 중요하다. 동사는 양산/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중국 현지업체에 공급했으나 최근 경쟁과 열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IRA 이후 북미/유럽 등에서 고객사들의 국산화 니즈가 커지는 반면 경쟁사들의 해외진출은 제한적인 바 업황은 천보에게 우호적이다. 실적은 1Q23을 바닥으로 회복하고 개선은 24년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가는 실적개선을 확인하면서 우상향할 전망이기에 점진적인 매수를 권고한다.

2023년은 부진하나 2024년 지역다변화로 실적 상향 여력 존재

천보의 2023년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4%/-44% YoY 변동한 3,432억원/320억원, 영업이익률 9.3%(-8.2%p)를 전망한다. 1Q23을 바닥으로 회복중이나 2Q23에 중국향 매출둔화 여파가 지속되는 바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23년 하

반기에 물량이 회복하고 24년 고객사들의 유럽/미국 생산물량이 커지면서 지역별 비중도 다변화될 전망이다. 천보는 현재 중국비중이 40% 이상인데 중장기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국/유럽 60%, 한국/일본 20%, 중국 20%로 다각화할 계획이다. 주요 경쟁사들은 중국에 있기에 IRA로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제한은 천보에게 긍정적이다. 2Q23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고 하반기 개선이 확인되면 2024년 추정치 상향 여력이 있다.

원재료 대체로 F전해질 판가를 낮추고 대량양산으로 경쟁력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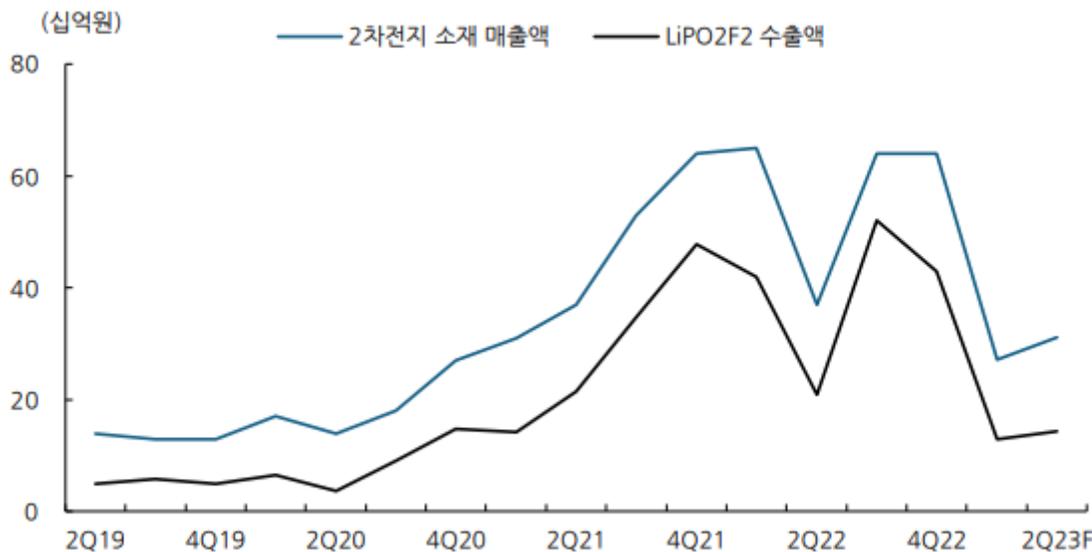
천보가 증설중인 LiFSI의 성능은 기존 전해액 LiPF6 대비 우수하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고용량 삼원계에서 부식문제가 있어서 상용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천보는 해당 문제를 저렴한 원재료 대체와 리튬 수율 개선으로 가격단가를 낮추고 부식방지제를 준비해 개선중이다. 범용성 있는 원재료로 원료를 구성해 원가 비중을 50% 내외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고객사들의 내재화 흐름이 있지만 상용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천보는 기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객다변화가 진행중이고 대량양산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55	272	329	343	650
영업이익	30	51	58	32	75
영업이익률(%)	19.4	18.6	17.5	9.3	11.5
세전이익	30	55	36	39	7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7	44	39	27	55
EPS(원)	2,734	4,377	3,893	2,705	5,481
증감률(%)	18.7	60.1	-11.1	-30.5	102.6
ROE(%)	12.6	17.2	12.4	7.5	13.8
PER (배)	66.7	79.6	52.1	75.0	37.0
PBR (배)	8.1	12.2	5.9	5.5	4.8
EV/EBITDA (배)	43.3	52.4	24.4	32.3	18.7

자료: 천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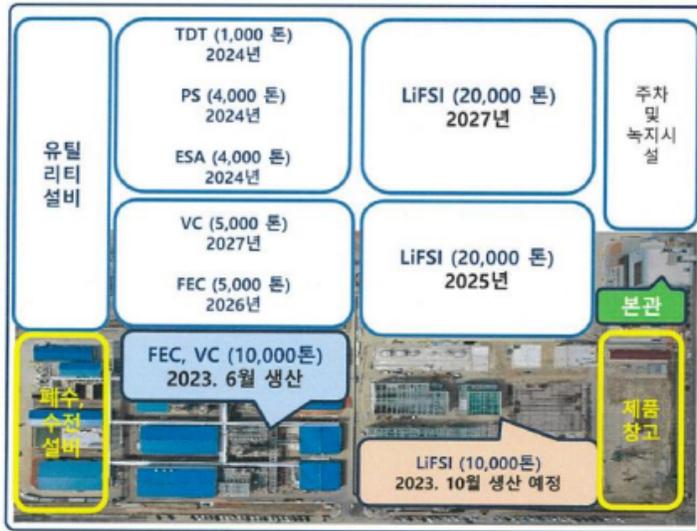
그림1 LiPO2F2 수출액과 천보의 2차전지 소재 매출액 추정치



자료: 수출입무역통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주: 2Q23 수출액은 4-5월 가중평균한 금액을 가정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장 건설



- 면적 : 220,751m²(약 66,780평)
- 투자액 : 1차 3,800억원(~2023)
- 고용 : 470명(~2026)
- 보조금 : 매 3천억 이상 투자 시 4백억+α
- 법인세 : 5년 100%+2년 50% 감면



자료: 천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현대그린푸드

실적은 좋고, 주가는 싸니 좋은 주식이구나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분기에도 실적 고 성장세 예상

현대그린푸드 실적 성장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매출액은 약 5,200억 원(전년동기대비 +17.1%), 영업이익 316억 원(전년동기대비 +43.3%)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1분기 대비 +18.8%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 긍정적 실적을 추정하는 근거는 1) 조업일수(단체급식) 증가에 따라 주요 사업장 기여도 확대, 2) 일부 거래처 단가 인상에 따른 효과, 3) 군급식 공급 물량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분기는 주요 사업장 조업일수가 증가하는 시즌이다. 여기에 주요 사업장 단가 인상에 따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추가 사업장 단가 인상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영업실적 개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사이트 확대 가능성에 주목

동사의 해외사이트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년 1분기 해외 급식 매출액은 240억 원을 기록하였다. 중국법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멕시코 법인 실적 개선이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조지아 법인 실적이 유의미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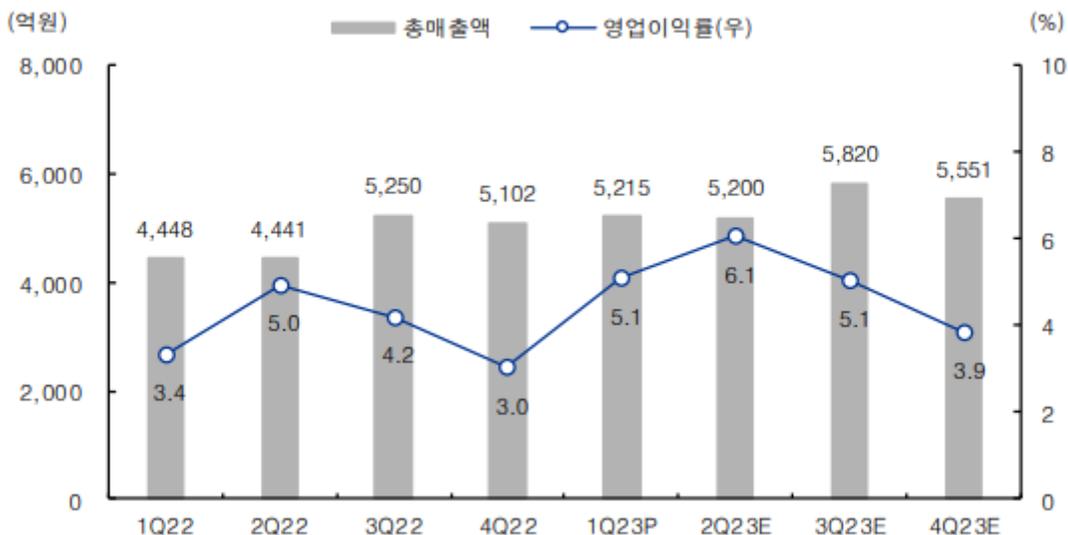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1) 현대차 EV공장 준공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및 식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 범현대 EV라인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사는 UAE원전 및 쿠웨이트 교각 건설 등 단체급식 사업장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트 증가에 따라 국내 시장 둔화를 상쇄시킬 사업부로 안착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적극매수, 목표주가 25,000원 유지

(단위:십억원/배)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매출액	0	0	1,832	2,367	2,566
영업이익	0	0	101	122	135
세전이익	0	0	101	123	137
지배주주순이익	0	0	9	21	23
EPS(원)	0	0	309	619	674
증가율(%)	0.0	0.0	0.0	100.1	8.8
영업이익률(%)	0	0	5.5	5.2	5.3
순이익률(%)	0	0	4.3	3.9	4.1
ROE(%)	0.0	0.0	1.4	3.4	3.7
PER	0.0	0.0	39.3	19.6	18.0
PBR	0.0	0.0	0.7	0.7	0.7
EV/EBITDA	0.0	0.0	3.7	3.5	3.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현대그린푸드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그린푸드, IBK투자증권



기아
 서구권에서 브랜드 약진 지속
[\[출처\] 신한투자증권 정용진 애널리스트](#)

실적 모멘텀 유지 중인 2Q23

4~5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52.8만대(+11%, 이하 YoY)를 기록했다. 내수는 9.9만대(+4%)를 기록한데 반해 해외 판매가 42.8만대(+13%)로 성장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영업일수 감소나 대규모 파업과 같은 변수가 없다면 월 평균 5만대 내외의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5월말에는 금속노조 파업의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생산 차질 규모는 2천대 내외로 미미했다. 광명 2공장(프라이드, 스톤 생산)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셋다운도 연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나 비주력 차종 중심으로 전체 판매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국내는 이후에도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

올해 실적의 핵심은 해외일 수 밖에 없다. 4~5월 판매 선방을 이끈 지역도 첫번째는 미국이다. 14.1만대(+23%)가 판매됐고, 쏘렌토/텔루라이드와 같은 고가 차종의 성과가 좋아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두번째로 판매가 견조했던 지역은 유럽으로 10.1만대(+14%)가 판매됐다.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은 월 3만대 내외의 생산량 중 1만대 가량이 HEV 및 PHEV로 전환됐고, 국내에서 수출한 전기차 판매 물량도 월 6천대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전동화 차량을 중심으로 양호한 판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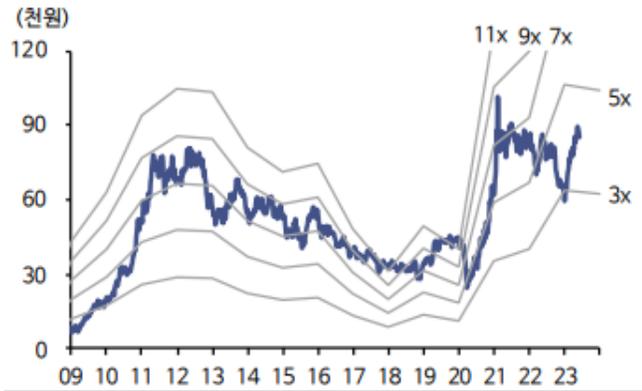
목표주가 11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0,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3F PER 5.4배에 해당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PER을 하회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다.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12%까지 도달한 수익성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거꾸로 보면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 어렵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순차입금비율 (%)
2021	69,862.4	5,065.7	4,760.5	11,744	86,121	7.0	3.5	1.0	14.7	(23.0)
2022	86,559.0	7,233.1	5,409.4	13,345	97,044	4.4	1.3	0.6	14.6	(30.1)
2023F	94,481.9	9,868.3	8,560.7	21,233	110,664	4.1	1.3	0.8	20.4	(40.4)
2024F	94,719.5	8,924.5	8,350.4	20,770	126,520	4.2	0.9	0.7	17.5	(46.9)
2025F	99,308.0	8,899.6	8,526.4	21,208	142,814	4.1	0.5	0.6	15.7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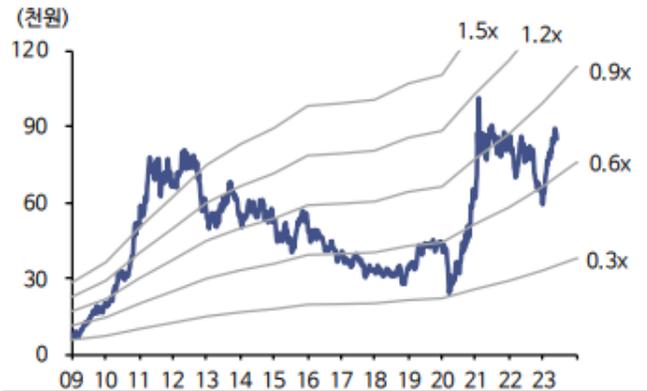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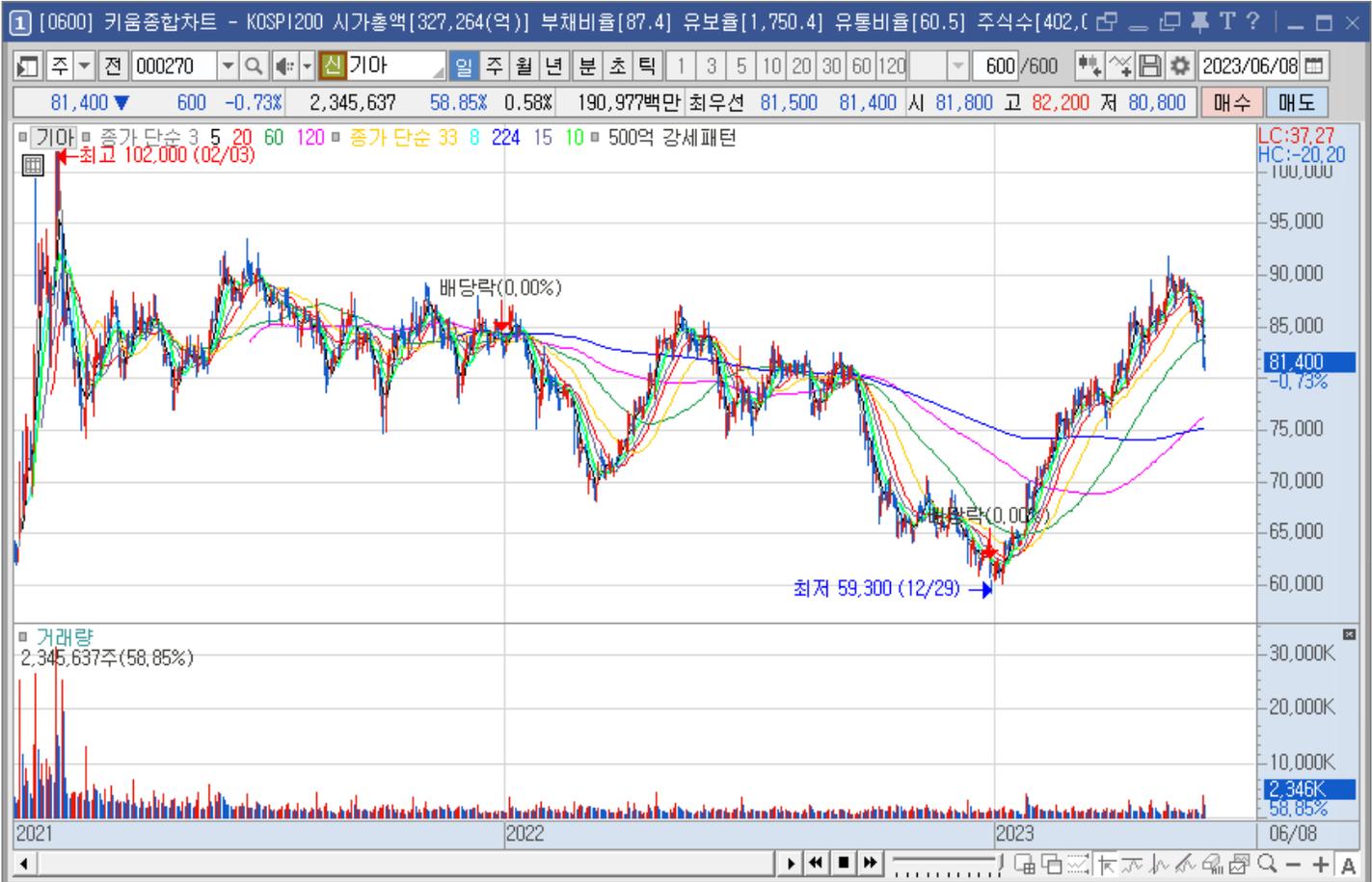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BR 밴드 차트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노바텍

매력적인 성장스토리 보유

[\[출처\] 메리츠증권 양승수 애널리스트](#)

[기업개요]

노바텍은 희토류 금속계 자석 중 네오디움 자석(NdFeB)을 이용한 응용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자석 전문 상장사. 2022년까지 제품의 대부분이 태블릿 PC 등 IT 디바이스에 탑재되었으나 올해부터 전장, 이차전지 등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가 이뤄질 전망

[투자포인트]

- 1) 맥세이프 기반 무선통신 표준규격 채택 확대 진행: 2023년 1월 WPC(Wireless Power Consortium)는 애플의 맥세이프 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Qi2 무선 충전 표준을 발표. 맥세이프는 안드로이드의 무선 충전과 달리 자석으로 스마트폰과 충전기를 고정하여 무선 충전 효율이 상승. 향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맥세이프 충전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객사와 함께 Qi2 방식 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개발 중인 동사의 납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 폴더블향 매출 확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플립형 Halbach 마그넷 공급이 이뤄질 전망. 폴드형 Halbach 마그넷 공급만 이뤄진 2022년 폴더블향 매출액은 약 110억원 기록. 올해 플립형 공급 확대를 통해 당사가 예상하는 폴더블향 매출액은 약 247억원(신규모델 출하량 1,210만대 가정). 또한 올해 폴더블 조기 출시로 인해 6월부터 비수기를 벗어나 실적 반등이 이뤄질 전망
- 3) 전장향 매출 확대: 자동차용 조향 장치(MPS: Motor Position Sensor - 파워스티어링이 유압식->전동식으로 교체되면서 조향정보를 ECU에 전달하기 위한 자석 센서) & 브레이크시스템(IDB: Intergrated Dynamic Brake - 기존 유압식 부스터 대신 전자식 부스터와 ECU를 통합한 브레이크 시스템) 납품 시작. 차량당 MPS(1개) + IDB(3개), 총 4개의 동사 제품 탑재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매출 확대는 내년으로 예상
- 4) 2차전지(탈철기) 신사업 진출: 하반기내 2차전지 배터리용 전자석탈철기(EMF) 제품 고객사 쉐 테스트 진행 예정. 예상 소요 기간은 2~3개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고객사 내 채택 라인 확대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전망

[실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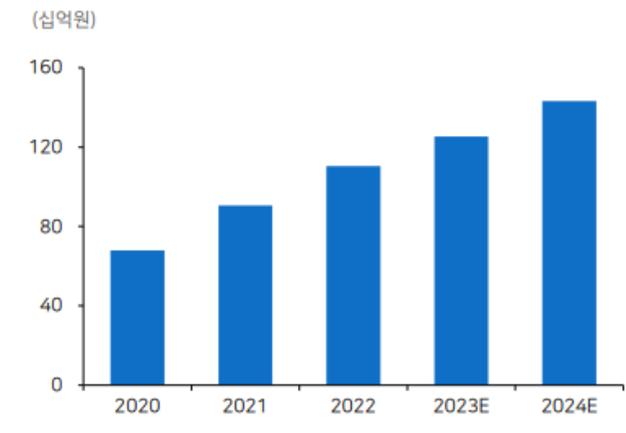
2023년 매출액 1,254억원(+13.5% YoY), 영업이익 382억원(+44.5% YoY, OPM: 30.5%)를 전망. 1분기는 비수기 및 전방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6월부터 폴더블향 제품 공급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전망. 작년 말 진행한 구조조정(일회성 비용 40억 반영) 영향으로 올해부터 자회사(노바랩스, 노바코스)의 적자폭 축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 동사 현 주가는 당사 추정치 기준 12개월 선행 PER 10.6배로 과거 밴드평균(13.3배)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 중.

표1 노바텍 실적 전망 (메리츠 추정)

(십억원)	1Q22	2Q22	3Q22	4Q22	1Q23	2022	2023E	2024E
매출액	41.0	22.4	26.6	20.5	20.6	110.5	125.4	143.2
YoY (%)	100.4	12.3	3.4	-16.1	-49.8	22.1	13.5	14.2
영업이익	13.8	5.8	7.5	(0.6)	6.8	26.5	38.2	43.2
YoY (%)	62.0	36.3	-31.1	적전	-50.5	-19.7	44.5	13.1
영업이익률 (%)	33.7	25.8	28.2	-3.1	33.2	24.0	30.5	30.2
지배주주순이익	8.0	2.3	4.8	1.5	7.5	16.6	29.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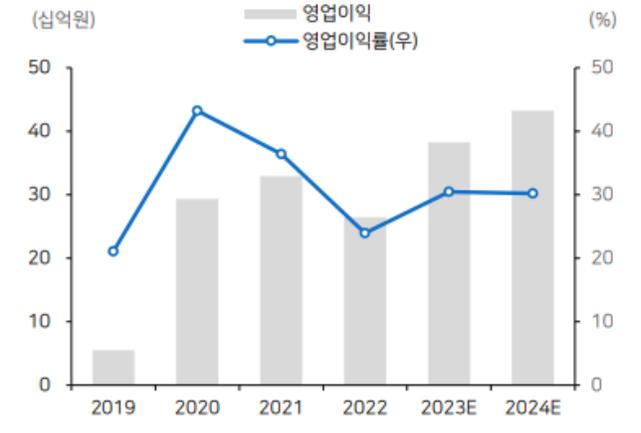
자료: 노바텍,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노바텍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노바텍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2,350 ▲ 1,650 +5.37% 368,638 293.20% 3.49% 11,851백만 최우선 32,400 32,350 시 30,500 고 32,650 저 30,450 매수 매도

